1 중국

1-1 중국 식품안전표준 정리통합 완료

■ 주요내용

- 중국 식품안전표준은 약 5,000여개로 수많은 표준이 있어 수출 품목에 적합한 표준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. 중국 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약 3년 간의 정리 및 통합 작업 끝에 현재 작업이 완료되어 기초적인 식품안전국가표준체계가 구축된 상태임
- 2013년부터 관련 부문에서 현행 식품표준에 대하여 통합 및 정리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음. 국가위생위원회 식품부 부국장은 "여러 표준 간에 중복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 생산기업과 검역부문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"고 밝힘
- 정리통합대상은 5,000개의 농식품 품질안전, 식품품질, 식품위생 등의 기준으로 정리통합 결과 현재까지 683개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이 발표된 상태이고, 400개가 대기상태임. 약 1만 2천여 개의 항목이 이와 관련되며 정리통합 작업을 통하여 검역에 더욱 효율적인 식품안전표준체계를 구축하였음
- 다음 단계로는 식품안전표준 보완, 오염물질 색출 강화, 생산경영위생규법, 식품 영양 등 기준을 수정할 계획으로 대학원, 연구소 등 개발팀과 협력하여 제도의 공신력을 높일 예정임

시사점

- 식품안전표준은 중국 국내에 수입 및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생산 및 가공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는 규범으로 해당 식품안전표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내로 정식 통관이 불가능하며, 유통 역시 불법임. 하지만 수많은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기준을 일일이 마련하려다보니, 기존 표준 간 중복되는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통관 절차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함
- 대대적인 통폐합 절차를 통하여 식품안전표준 체계가 구축된 후에는 식품 수출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함

작성 : 상해 지사